

2025학년도 1학기 글말교실 소감문



침묵으로 시작된 깊은 대화의 장

이름	조원영
전공	소프트웨어학부
학번	20223143
참여 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1-on-1코칭 (담당교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글말특강 (7회차)

‘말을 하면 들을 수 없다.’ 라는 강의 중간 슬라이드의 문장은 열 글자 내외의 짧은 문장이었지만, 내겐 많은 울림을 주었다.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나를 ‘경청형’ 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이 문장을 듣고 내 행실을 되돌아보니, 오히려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그에 대한 내 반응을 생각하느라 이야기를 놓친 경우가 많았던 것 같다. 대체적으로 침묵을 단절로 느끼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와 반대로, 강의에서 침묵은 여백으로 재정의 했다. 이러한 여백은 타인뿐만 아니라 나까지 편안하게 숨을 쉬게 만든다. 침묵을 통한 고요함이 오히려 적극적인 소통의 기술임을 깨닫게 되었다.

침묵은 ‘건설적 침묵’ 과 ‘파괴적 침묵’ 으로 나뉘고, 이 둘의 대비를 보여주며 강의를 이어진다. ‘파괴적 침묵’ 은 무시나 회피의 의미를 가지는 침묵으로, 이는 인간관계를 갉아먹는다. 이와 반대되는 ‘건설적 침묵’ 은 감정적으로 언쟁을 벌이기 전, 자신을 멈춰 세우는 침묵으로, 이는 대화의 흐름을 바꾸며 더 나은 방향으로의 대화로 이어지게 만든다. 기말고사 대체 과제로 팀 프로젝트를 최근 수행했는데, 회의 중 의견이 대립해 목소리가 서로 커지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 강의를 생각나 회의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다. 지금까지 서로 주장하는 바를 전부 모아 하나로 합치는 것만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 믿어왔던 내게, 때로 침묵이 오히려 빠른 해결 방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최승호 시인의 <발효>와 프랑수아 수도원의 침묵 수행 사례를 보며, 외부적인 전략으로의 침묵이 아닌 내면을 바라보는 작업의 일환인 침묵을 배울 수 있었다. 침묵 속에서 자기 내면에 존재하는 불안과 자기 비난을 들여다볼 때, 이들이 발효되어 더 깊은 통찰로 숙성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명상과 같은 자신을 들여다보는 경험이 전무했던 나에게는 깊은 통찰은 너무 먼 미래로 느껴졌다. 그래서 ‘말하기 전에 5초 생각하기’ 와 같이 일상 속에서 간단하게 적용해볼 수 있는 부분들부터 실천해보려 한다. 이를 내 삶 속에 녹여낸 이후에는 SNS 알림을 끄고, 고요함 속에서 책을 읽어보는 습관을 들이려 한다.

강의는 역설적인 진실을 일깨워주었는데, 잘 듣는 사람이 오히려 관계의 주도권을 가진다는 점이다. 무한 경쟁 사회 속 하나의 부품이 되고 싶은 내게 익숙한 방식은 경쟁적으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방식이다. 그런데, 상대방의 이야기를 온전히 들어주는 행위가 오히려 더 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가르침은 상당히 낯설었지만, 설득력이 그 이질감을 넘어섰다. 피드백 대신 스스로 답을 찾을 여백을 제공하는 것은 상대방의 성장을 돕고 이로 인해 관계의 주도권뿐만 아니라 관계 자체가 발전한다는 점은 내게 많은 울림을 줬다.

50분 남짓한 강의 속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 것들을 얻어낸 것 같다. 침묵의 중요성을 깨달은 만큼, 이를 지키고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전하는 모습이 기대된다. 말의 양은 줄이되, 그만큼 귀와 마음을 여는 사람이 되어 풍성한 세계의 소리를 듣는 즐거움을 이어가겠다.